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1>



참 아름다운 관계, 사제시간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듣고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종교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을 숭배하는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가 사리불을 보자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딜 다녀오시는 길이요?" "부처님을 찾아뵙고 법을 듣고 오는 길이요." 그러자 그 종교인은 딱하다는 듯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허허, 아직도 스승의 설법을 듣고 다니다니... 여태 찢을 때가 못하였소? 나는 이미 찢을 때가 오래요."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에게 출가하기 전에 이미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수백 명이 될 정도로 실력과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처님 계신 곳을 따라 다니며 낮은 자리에서 앉아서 법을 듣는다니 제가 생각해봐도 그는 여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자는 태연스레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가?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오. 그때가 벌써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요, 진정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런저런, 아니 우리도 아껴 먹는 고기를 감히 개가 먹어 치워?"

사람들은 그 개를 죽도록 때리고 다리를 부러뜨린 뒤에 그냥 버려둔 채 떠나갔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사리불 존자가 천안(天眼)으로 죽어가던 그 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서둘러 성에 들어가 음식을 얻어 가지고 나와 개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개는 음식을 먹고 간신히 기운을 차렸고 사리불 존자는 미묘한 법을 일러 주었습니다. 사리불 존자의 법을 들은 뒤 개는 이내 목숨을 마치고 사위국의 어느 바라문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 사리불 존자가 그 집에 걸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바라문은 존자가 홀로 걸식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자 자기 아들인 균제를 그에게 출가시켰습니다. 사리불은 균제를 사미로 얻어서 기원정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차근차근 알아듣기 쉽게 설법을 해주자 아이는 마음이 열리고 뜻이 풀려 마침내 아라한과를 얻고는 공덕을 다 갖추었습니다.

도를 얻은 균제 사미는 '대체 나는 지난 세상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런 훌륭한 분을 스승

깨달음은 아름다운 사제관계가 있기에 가능한 것  
훌쩍 자리를 비워버린 큰 스승님들 못내 야속

으로 의지할 만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요. 이미 소가 있다고 합니다. 성품이 거칠고 사나운데다 짓이 적어서 아무리 빨아도 짓이 잘 나오지 않으면 송아지들은 어떻게 하겠소? 어미 소를 떠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내가 배우는 법은 좋은 진리이고, 바른 깨달음이며, 번뇌를 없애주는 가르침이며, 의지할 만한 가르침이요. 마치 맛있는 짓이 풍부하여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항상 잘 나오기 때문에 송아지들이 떠나지 않는 어미 소처럼 말이요. 내가 오래도록 스승을 자주 찾아뵙고 그 분의 설법을 자꾸만 청해 듣는 것은 그 가르침이 바른 것이요 훌륭한 기 때문이요." <잡아함경>35권(947경)

대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깊이가 어느 정도 이기에 사리불 존자가 이와 같은 비유를 드는 것일까요? 스승의 깊이를 가늠할 수준의 제자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승에 대한 진실하고 소박한 마음가짐을 끝까지 유지했던 사리불 존자는 정작 자신의 제자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도 자못 궁금해집니다.

장사꾼들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며 여기저기 장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마침 그들이 길가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 개가 장사꾼들의 고

으로 모시게 되었을까? 궁금해 하다 지혜의 힘으로 지난 세상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리불 존자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 몸이 다할 때까지 우리 스승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리라."

그러하여 균제는 계속 사미로 지내면서 대계를 받지 않고 사리불을 모셨습니다. <현유경> 훗날 사리불 존자가 고향에 돌아가서 열반에 들었을 때도 쫓까지 그 옆을 지킨 사람은 균제 사미였습니다. 존자의 유해를 부처님에게 가지고 와서 눈물 속에서 스승의 열반을 알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입니다만, 그 깨달음이 인간 속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제관계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꾸 우리 곁에서 큰 스승님들이 떠나가십니다. 만난 자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세상 모든 것은 흩어지기 마련이지만 훌쩍 자리를 비워버리시는 스승님들이 못내 아속하기까지 합니다. 아직 그 찢을 못다 먹었는데 말입니다.

■ 이미정(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지금 하는일부터 최선을...



도견 스님은 "우리는 본래부처인데 번뇌망상 때문에 부처 노릇을 못하고 있다"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진해나가기 한다"고 강조한다.



도견 스님

(해인사 동당수좌)

무상(無相)으로 위종(爲宗)하고 무주(無住)로 위체(爲體)하고 묘유(妙有)로 위용(爲用)이라. 공부에 대해서 말한다면 <금강경>에 상이 없는 것으로 전체를 삼고, 주함이 없음으로써 체를 삼고, 마음의 응심하는 것으로 용을 삼으라 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여기에 한 물건이 없으니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그러기도 하고 혹은 손가락을 쳐내밀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며)가리키기도 하는데 그것이 다 한 물건을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알리고 하는 것이 모든 스님네의 공부하는 방법이지요.

이 세상물건은 모든 것이 그들이 있으면 양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듯이 상대가 있는데 이 물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뭐라고 입만 열면 한방망이 맞아야 하지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언어도단이고, 말 길이 끊어진 자리지요.

또, 천겁을 지났어도 항상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불기 몇 년이다' 그러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때' 라고 그랬지. 불기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견성할 분들은 다 자기가 본 마음 자체를 얘기합니다. 비유컨대 이만한 데를 들여다 보면서도 저쪽 문에서 들여다본 사람은 저쪽에서 본 것을 그대로

크든 작든 걸림없는 마음자리

얘기하고 이쪽에서 본 사람은 이쪽에서 본 것을 얘기하지요. 동서남북에서 본 것은 다 다르지만 본 당채는 하나입니다. 마음 자리를 찾기 위한 방법이 다 다르지만 간혹산이나 위빠사나나 어찌니 하는 것보다도 하나로 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니까 그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도 다 거기에서 생겨나고 모든 것이 다 마음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이 마음자리를 등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자리의 크기를 말하면 이 우주를 싸고도 남고, 작기로 말하면 햇빛에 비쳐보이는 잔잔한 수없이 많은 먼지 속에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크면 작은 데 못 들어가고 작으면 큰 데 못 들어가는 것이 세상 물건인데, 마음자리는 작고

제26기 불교 전문 호스피스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 26기 불교 전문 호스피스 교육안내』



살을 저미는 이 세상 외로움 속에서  
물같이 흘러간 그 나날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애터지게 부르면서  
그 누가 죽어 가는가 보라.

정녕코 오늘 저녁은  
비길 수 없이 정한 목숨이 하나  
어디로 물같이 흘러가 버리는가...

호스피스...  
生死, 고행의 눈에서 자비를 피어 오르는 구도의 길이며, 보리심의 꽃이며 성불의 열매다!

교육 안내

- ◆일 정 : 2005년 1월 9일 ~ 2005년 1월 16일 (7박 8일)
- ◆장 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정토마을
- ◆교육대상 : - 스님 및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은 재가법사, 포교사  
- 불교인으로서 삼귀오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신심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인 원 : 선착순 남,여 40명 ◆연 령 : 32세 ~ 65세 ◆교육수강료 : 19만원
- ◆기 잡 물 : 공통 - 반명함판 컬러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1통, 필기도구, 개인 세면도구, 108염주 스님 - 가사장삼, 목탁
- ◆원서접수 : 전화접수, 우편접수, 직접방문 ◆원서마감 : 2005년 1월 5일

한국 불교 아미타호스피스 협회의 호스피스 교육은  
국내 유명 강사진과 함께 의료복지 포교 및 자질 향상에 최선을 다합니다.

◆교육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정토마을 사무국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43) 298-2258, FAX : 043) 298-1457 주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1  
Homepage : http://www.jungtoh.com(한글로 '정토마을' 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e-mail : jungtoh@jungtoh.com 불교호스피스연합 : cafe.daum.net/BHU

PALLIATIVE CARE CENTER 정 토 마을 원 장 能行 합장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개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6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회사상 · 반야사상 · 회암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부전장스님(본대학학장) · 김성현(동국대학교수) · 최치석(동국대학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학교수)	· 정병조(동국대학교수) · 계광스님(동국대학교수) · 보각스님(승가대학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성당론	· 안도스님(전포교원장) · 윤수연(문화재단위원장) · 허일범(전강대학교수) · 최중석(금강대학교수)	· 권기중(동국대학교수) · 김호귀(동국대학교수) · 황안스님(금강선원총제) · 주명철(동국대학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학부원 200명, 동산반 100명) (59명) (59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5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장래문화학과(50명) · 불교문화답사학과(강원도30명, 동산반20명)	·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4년 12월 11일~ 2005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영근관)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다도학관)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관)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관)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래문화학관)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불교문화답사학관)	동산반은 지방커우나 출석수당이 아려우자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5년 2월 5일(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래문화학과 · 불교문화답사학과 : 2005년 3월 8, 9, 10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역)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양불교서점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성당 064)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학교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큰 것에 걸림이 없습니다. 이 도리를 알면 매사가 다 하나로 통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뭐라고 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모두 잘못된 소견입니다.

과거 조사님들도 마음자리에 대해 얘기한 것이 800여 가지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사실 하나로 회통하는 데는 마음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공부할 해서 깨쳐야만 이 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번뇌망상 때문에 부처노릇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번뇌망상이 공한 줄 알면 본래 부처라 이 말이지요.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어떤 제자가 자꾸 와서 '부처님이지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하니, 나무를 흔들어서 '나무가 어떻게?'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리지 않느냐'고 했더랍니다. 부처님도 이렇게밖에 못 가르쳤습니다. 가르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또 중국의 어느 조사는 제자가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물으니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한 물건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깨지기 전에는 모른다는 말이지요.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는 먹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옆에서 차고 뜨거운 것을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맛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얘기할 때 아주 고상한 법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는 것이고, 성철 스님은 신도들에게 꼭 삼천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번뇌망상 공한 줄 알면 본래부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일뿐 아니라 쓸데 없는 망상을 제거하고 통일된 그 마음자리를 오롯이 수행에 몰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6년 고행하던가 달마 스님이 9년 고행하신 거나 다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진짜 마음의 도리를 얘기하면 전부 놀라서 도망가 버리지요. 그러니까 초보자에게는 근기에 맞게 부처님께 기도를 해라, 삼천배를 해라, 염불을 해라 등등 뭘해라 하는 겁니다. 수련해 나가는 과정이고 자기가 직접 해보아야 합니다. 꾸준히 해 수행의 맛을 본 사마리아는 남이 하라 마라 안 해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통일되었을 때 공부하는 방법을 바르게 일러줘야 곧바로 들어갈 수 있고 바른 가르

침을 받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로 몰입될 때 화두참구가 잘 됩니다.

공부는 이 하나로만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잠깐이라도 화두를 놓치면 '염주(念珠)' 있지요. 생각 녀념(念), 구슬 주(珠), 염주를 생각하면 또 화두가 잡히는 수가 있어요.

과거 큰스님들이 비유한 말이 있습니다. 밀밭 속에서 나무를 베어 끌고 내려올 때 나뭇가지를 다 자르고 나무뚝치만 남아야 죽 끌고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공부도 그래야 합니다. 마음 다스리는 것도 그와 같이 해야 해요.

마음 하나돼야 화두 잘 잡혀

방편이 그렇게 많은데 '뭘아래 잤나무리' 혹은 '똥막대기나'라' 하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공부할때는 다 형태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아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락으면서, 대변을 보면서, 물건을 팔면서 아무데서나 공부할 수 있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형태가 있는 공부만을 해왔기 때문에 화두를 가르쳐 주어도 익어지지 않아 자꾸 번뇌 망상이 일어나고 복잡합니다.

한암 스님이 예전에 저에게 글을 가르치다가 너무 모르니까 '너희 할아버지가 글을 했느냐, 할머니가 글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어느 누구도 글을 못배웠다'고 말하니 한암 스님이 '너는 글 하는 소리조차도 못 들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투르지,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과거의 것이 서툴러지고 새로 하는 것이 잘 개척해 나가는 것이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공부든 마음공부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필경엔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재가불자 중에도 전생애 공부를 많이 한 이는 스님보다 몇 배 공부가 쉽게 되는 이도 있고, 스님이라도 영 공부가 둔해서 안 되는 이도 있습니다. 그 래도 오래 오래 꾸준히 한다면 필경에는 그 문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정성껏 하는 것이야 부처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법을 만났으니 한번 제대로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배지선 기자 · 사진 = 박재환 기자

도견 스님은

매일 2시간 여여한 포행 마음 살피고 자연과 교분 쌓고



해인사 모든 수좌들의 수행을 점검 경책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 온 스님은 지금도 일주 일간 잠 안자고 수행하는 용맹정진에 방장 스님과 번갈아 나가 경책하고 돌아보는 책임을 맡고 있다.

스님은 매일 새벽 6시 반. 낮 12시만 되면 어김없이 포행에 나선다. 해인사 극락전 뒤로 난 조그마한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지족암과 백련암으로 오르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밀로 내려와 성철 스님 사리탑을 거쳐 한바퀴를 돌아온다. 1시간이 족히 걸리는 포행길이다.

"스님, 포행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포행길을 따라나서며 대뜸 여쭙는다. "자기 마음이 어디있는가 살피지." 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도견 스님은 스스로를 평하며 "전생애도 부처님 제자였고, 금생에도 부처님 제자고, 역시 앞으로도 이 길을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힘드시진 않아요?"

"그래야 운동이 되지." 스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차분하면서도 여여하다.

바스락 바스락 나뭇 위를 옮겨 걸는 80 노 스님의 발걸음 또한 결코 빠르지는 않았지만 한결같다. 가다가 재가불자를 만나면 인사도 건네고, 구석구석 자연과의 교분을 쌓아간다. "저것이 잣나무지, 여기는 잣나무가 많아. 전에는 여기서 여우가 얼굴을 속 내밀었어"

스님은 우뚝한 기자에게 어떻게 하면 법의 진수를 알리을까 재미난 이야기들을 섞어가며 시간도 적고 큰 것도 없는 하나를 알아야 한다고 시종일관 법문했다.

도견 스님은 1925년 인천시 강화군 화전면 부근리에서 태어났다. 1944년 오대산 통관암에서 지철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45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3년간 교학에 정진했다. 이후 해인사, 순천 송광사, 선산 도리사, 부산 범어사 등 전국 각지의 선방에서 수행했다.

스님은 80년대 중반 중앙종회의장과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다.



지현 스님의 스님이 이야기

적음 스님 (上)

오랜 도반 적음(寂音) 스님이 시집을 한 권 보내왔다. 그간 쓴, 한국 최초로 붓으로 쓴 아주 좋은 시집이다. 한지 재질로 만든 그 시집을 읽으면 서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그의 묵향을 느꼈다. 사람은 늘 가고 있지만, 사람은 늘 그렇게 오고 가며 살지만, 그의 행방은 늘 묘연했다. 우리네 스님들의 삶이 그러하지만, 그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온 천지 온 산하를 떠돌며 살았다. 도토리 주워 먹고 고구마 캐먹고 외진 저 지방의 어느 산자락에서 그는 지금도 머물고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그의 행방을, 다만 그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네 절을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음을 그런대로 추측할 뿐이다.

적음 스님은 열다섯 살 때 경주 함월산 기림사



그림 문병성

로 출가하여 대구 동화사 혜봉 노스님께 내전(內典)을 이수하고 증장으로 한참동안 후학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나는 조금 놀랐다. 적음 스님과 대학, 이런 것은 어쩐지 '매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것도 동국대학 불교학과가 아닌 일반대학, 그것도 서라벌 예술대학이라는 생판 듣지도 못한 학교의 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는 것은 나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스님은 남산 기슭에 있는 조그만 암자에 머물며 아침저녁으로 염불을 해 올리면서, 그렇게 어렵사리 학교생활을 한다고 들었다. 필박스런 삶의 한 가운데, 그러나 그는 묵묵히 그것을 견뎌냈다고 들었다. 그의 학교 친구들과 후배들은 그를 일컬어 '사운드 오브 사이렌스'라고 하며 웃어댔다. 법령 '적음(寂音)'을 그렇게 그대로 번역하며 즐거워했던 것이다. 그의 별명은 '재분불'이다. 한 번 웃기 시작하면 마치 털털거리는 재분불 같다는 게 그의 주변, 후배 친지들의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진정한 무소유(無所有)의 삶. 스님은 아직까지 그렇게 산다. 그는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생

(生)을 지금껏 영위해 오고 있다. 그런 그가 몇 년쯤 전에 토굴을 하나 마련했다. 너무 떠들다 보니 심신이 지쳤는지, 그냥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고 싶었는지, 어떻게든 그는 허물어져 가는 외진 농가를 사서 수리해서 산다. 토굴 이름은 일소암(一笑巖)이다. 세상만사 한 번 웃고 나면 그 뻘이라고 그렇게 지었는가. 한 번 웃으면 만사가 형통이라고 그렇게 지었는가. 일소, 일소, 일소. 모든 번뇌를 잊고자, 그렇게 일소로 흘날려 버리자 그리하여 그렇게 지었는가. 저 번 옛날 신라적, 서라벌 경주 남산에서 대안(大安) 스님이 가끔씩 장안을 나올 때면 대안 스님은 주문을 외우듯 대안, 대안, 대안 이러면서 다녔다. 적음 스님, 그도 앞으로 일소, 일소, 일소 하면서 서늘 장안을 누릴지도 모른다. 건강하고 묵묵한 적음 스님의 시 한 편을 소개한다.

바람처럼 전국 떠도는 시인 젊은 화가들과 10년째 교류

저녁에 왜 저처럼 늦게 연락을 주었는지 어제는 감쪽이 지기 시작하더니 초가를 바람 바람이 벌개 한 차레 비를 몰고 가는구나. 저녁엔 산산해서 한 잔 소주로 목을 달랠다. 그러한 것은 그라운 대로 놓아두고 그렇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이 저녁을 꾸러가야 하는 것인가. 연락은 한 차레 내리는 비처럼 왔다 갔다. 같이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

적음 스님은 해마다 한 겨울이면 경기도 가평의 북한강 굽이처며 흘러가는 대성리로 갔다. 거기서 다섯 내지 일주일 정도 머물며 젊은 화가들과 함께 '오늘의 그림'에 대해 얘기하며 찬바람부는 강가를 거닐었다. 한꺼번에 백 여명 정도가 모이는 거기서 그는 꼬박 십 년을 그렇게 보냈다. 십 년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겨울 대성리를 찾았고, 젊은 영혼들을 만났다. 젊은 영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젊은 영혼들을 위해 노래했다. 그의 시 '겨울 대성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인들이 '겨울 대성리 전'을 기획하고 그를 찾아와 동침할 것을 요청했을 때 그는 몹시 망설였다고 했다. 그러나 끝내 그는 흔쾌히 동참했고, 수 백명 관중이 모인 강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시 '겨울 대성리'를 읊고 한 시간여 강연하면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계속)

지현 스님은 1971년 범어사로 출가, 현재 봉화 청량사 주지로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으로 종단의 이모저모를 살피고 있으며, '좋은 벗 풍경소' 총재와 '함께 하는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매일 하루 두시간 포행에 나서는 도견 스님. 포행할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핀다"고 답한다.

Advertisement for medicinal mushrooms (Man-sam) with text: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어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역! ... 1Box (160포) - 20만원 | 2Box (120포) - 35만원

Advertisement for a diet plan: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Advertisement for a power supply unit: 전지식 2중문 3중정보 특허 불전함 ... 043-647-2378, 011-467-1472

Advertisement for water purifiers: 이것이 진짜 물이다. Bedesda AK-6000, AK-3000. 세계일류특허 ... 011-789-9492